

# 廣州語 後置부사어 연구

趙恩挺\*

---

◁ 목 차 ▷

- I. 緒論
  - II. 廣州語 後置부사어의 類型
    - 1. 時間 부사어
    - 2. 程度 부사어
    - 3. 反復, 頻度 부사어
    - 4. 範圍, 限度 부사어
  - III. 기타 方言과 壯侗語族 언어에 나타나는 後置부사어 현상
    - 1. 기타 方言에 나타나는 後置부사어 현상
    - 2. 壯侗語族 언어에 나타나는 後置부사어 현상
  - IV. 後置부사어 형성의 통시적 관찰
  - V. 結論
- 

## I. 緒論

문장 안에서 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한다. 廣州語<sup>1)</sup>의 부사어는 보통 표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술어인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놓이지만, 몇 가지 부사어들은 이와 반대로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놓이게 된다. 李新魁 等의《廣州方言研究》에서는 이들 부사어가 술어 뒤, 혹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놓이는 특징으로 인하여 조사로 간주하였으나,<sup>2)</sup> 본고에서는 문장 안에서의 배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廣州語 명칭에 관한 내용은 趙恩挺 〈廣州語와 표준 중국어의 否定文 比較 研究〉, (《中國文學研究》29輯, 韓國中文學會, 2004. 12.) 237쪽을 참조할 것.

2) 李新魁 等《廣州方言研究》: 「助詞粘附在詞, 詞組或句子之後, 給被粘附成分附加上某

열 위치보다는 술어를 수식하는 특성에 중점을 두어 부사어로 간주하였다.

廣州語의 여러 개론서들이 後置부사어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유형적인 분류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廣州語에 나타나는 부사어의 後置 현상뿐만 아니라 기타 方言과 少數民族의 언어인 壯侗語族에 나타나는 부사어의 後置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런 다음 이들 方言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러한 공시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가 後置부사어의 현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廣州語의 後置부사어는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분포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포 상황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하나의 부사어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므로(예를 들어 ‘형용사+부사어’, ‘동사+부사어’), 각각의 부사어들을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에서는 우선 의미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부사어 안에서 다시 분포 상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 II. 廣州語 後置부사어의 類型

### 1. 時間 부사어

#### 1) 先 [sin<sup>55</sup>] : 동사+(목적어)+先

‘先’은 동사 뒤에 놓이는데,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先’이 놓인다.

種意義. 廣州話의助詞特別豐富, 在普通話或別的方言裏通常用副詞或其他語法手段來表達的意義, 有不少在廣州話裏是通過後附助詞來表示的.(助詞는 단어나 구 혹은 문장 뒤에 붙어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 廣州語의 助詞는 상당히 풍부한데, 普通話나 다른 방언 안에서 일반적으로 副詞 또는 다른 성분으로 쓰이던 것들이, 廣州語에서는 助詞로 쓰이고 있다.)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5), 500쪽

- (1) 我行先, 你等一陣嚟.  
 (我先走, 你等一下來.)  
 나 먼저 갈게, 너 이따가 와.
- (2) 你食先啦, 唔使客氣.  
 (你先吃吧, 不用客氣)  
 사양하지 말고 먼저 드세요.
- (3) 你想做乜嘢先?  
 (你先想做什麼?)  
 먼저 뭘 하고 싶니?

예문 (1)에서는 동사 '行' 뒤에 '先'이 놓였고 예문 (2)에서는 동사 '食' 뒤에 '先'이 놓였다. 예문 (3)과 같이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做)와 목적어(乜嘢) 뒤에 '先'이 놓인다.

'先'은 '먼저'라는 뜻 이외에 '才(비로소)'와 '再(다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일 때에는 술어 뒤에 놓이지만, '才'와 '再'일 때에는 술어 앞에 놓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才  
 例) 要問佢先知.  
 (要問他才知道.)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어.
2. 再  
 例) 落咗堂先去啦!  
 (下了課再去吧!)  
 수업 끝난 후에 가.

위의 두 가지 경우의 '先'은 '至' 혹은 '先至'로도 쓸 수 있다.

2) 住 [ʃy<sup>22</sup>](暫時, 先) : 동사+(목적어)+住

'住'는 일반적으로 禁止를 나타내는 否定詞 '咪(別)', '唔好(不要)'와 함께 쓰여 '일단 ~하지 마라(先別' 또는 '暫時不要)'의 뜻으로 쓰인다. '住'는 또한 [ʃi<sup>22</sup>]로도 읽히는데 이와 발음이 같은 '自[ʃi<sup>22</sup>]' 역시 '住'와 같은 뜻으로 사

용되고 있다. '住'는 동사 뒤에 놓이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목적어 뒤에 놓여 '동사+목적어+住'의 형태로 쓰인다.

- (4) 你咪去嗰度住。  
 (你先別去那裏.)  
 너 일단 거기 가지마.
- (5) 而家唔好講住。  
 (現在暫時不要說.)  
 지금은 일단 말하지마.
- (6) 咪嘈住, 有事慢慢講。  
 (先不要吵, 有事慢慢說.)  
 일단 시끄럽게 굴지말고 사정 애길 천천히 해 봐.

예문 (4)와 (6)은 否定詞 '咪'가, 예문 (5)는 부정사 '唔好'가 '住'와 함께 쓰여 '일단 ~하지 마라'의 뜻으로 쓰였다.

'住'는 이밖에도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로도 쓰이는데 표준 중국어의 '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 例) 1. 你攞住乜嘢?  
 (你拿着什麼?)  
 너 뭘 들고 있니?
2. 我等住佢。  
 (我等着他.)  
 나 그 사람 기다려.

동태조사 '住'는 부사어 '住'와는 달리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놓여 '동사+住+목적어'의 어순을 이룬다. 또한 부사어 '住'는 '自'로도 쓸 수 있지만, 동태조사 '住'는 '自'로 쓸 수 없다.

### 3) 緊 [kɛn<sup>35</sup>](正在) : 동사+緊+목적어

'緊'은 '~하고 있다'의 뜻으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놓여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7) 李老師打緊電話。  
 (李老師正在打電話.)  
 이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 (8) 而家落緊雨囉。  
 (現在正在下雨.)  
 지금 비가 오고 있어.
- (9) 佢食緊雪糕。  
 (他正在吃冰淇淋.)  
 그 사람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예문 (7)에서는 '緊'이 동사 '打'와 목적어 '電話' 사이에 놓여있고, 예문 (8)에서는 동사 '落'과 목적어 '雨' 사이에 '緊'이 놓여있다. 예문 (9)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食)와 목적어(雪糕) 사이에 '緊'이 놓여있다.

## 2. 程度 부사어

- 1) 多 [b<sup>55</sup>], 少 [siu<sup>35</sup>] : 동사+多+목적어  
 동사+少+목적어

'多'나 '少'는 동사 뒤에만 놓여 '동사+多/少+목적어'의 어순을 이룬다.

- (10) 媽咪, 你畀多我啦!  
 (媽, 你多給我吧!)  
 엄마, 더 주세요.
- (11) 食多碗飯先至走啦!  
 (多吃一碗飯再走吧!)  
 밥 한 그릇 더 먹고 가.
- (12) 食少啲煙對身體有好處嘅。  
 (少抽點煙對身體有好處.)  
 담배를 줄이는 게 몸에 좋을 거야.
- (13) 你講少兩句。  
 (你少說兩句.)  
 더 이상 말하지마.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多나 少가 동사 '畀, 食, 講'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쓰였다. 목적어(我, 碗飯, 啲煙, 兩句)는 이들 後置부사어의 뒤에 놓였다.

2) 快 [ *fai*<sup>33</sup> ], 慢 [ *man*<sup>22</sup> ] : 동사+快+수량보어

동사+慢+수량보어

'快'나 '慢' 역시 '多, 少'와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만 놓여 '동사+快/慢+수량보어'의 어순을 이룬다.

(14) 我想學快啲.

(我想快點學.)

나 빨리 배우고 싶어.

(15) 我同你做快啲喇.

(我會幫你快點做.)

너 대신 빨리 해 줄게.

(16) 唔該你講慢啲, 好唔好?

(不好意思你慢點說, 好不好?)

죄송하지만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세요.

(17) 食慢啲啦!

(慢點吃吧!)

천천히 좀 먹어!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快'와 '慢'이 동사 '學, 做, 講, 食'과 수량보어 '啲' 사이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3) 過頭 [ *kuo*<sup>33</sup>*teu*<sup>21</sup> ], 得滯 [ *tek*<sup>5</sup>*tʃei*<sup>22</sup> ](太) : 형용사+過頭

형용사+得滯

'過頭'와 '得滯'는 '太(너무)'의 뜻으로 어떠한 정도나 한계를 넘어섬을 나타내며 형용사 뒤에서만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 車開得快過頭, 好危險.

- (車開得很快, 很危險.)  
차를 너무 빨리 몰고 있어. 위험해.
- (19) 啲菜鹹過頭.  
(這些菜太鹹.)  
이 음식 너무 짜.
- (20) 嗰件衫貴得滯.  
(那件衣服太貴了.)  
저 옷 너무 비싸.
- (21) 呢啲橙生得滯.  
(這些柳橙太生了.)  
이 오렌지들 너무 안 익었어.

‘너무 ~하다’는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는데, ‘過頭’와 ‘得滯’는 부정적인 뜻으로만 사용된다. 대신 긍정적인 뜻을 나타낼 때에는 ‘過頭’가 아닌 ‘眞(係)’를 사용한다. 이 때의 ‘眞(係)’는 ‘過頭, 得滯’와는 달리 형용사 앞에 놓인다.

- 例) 1. 佢眞(係)勇敢囉.  
(他太勇敢了.)  
그 사람 정말 용감해.
2. 咁做眞(係)好囉.  
(這樣做太好了.)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잘 됐어.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표준 중국어의 ‘太’는 긍정과 부정의 뜻을 함께 지니지만, 廣州語에서 긍정의 뜻은 ‘眞(係)’를, 부정의 뜻은 ‘過頭’나 ‘得滯’를 사용한다.

4) 乜滯 [ *mɛtʰɿei*<sup>22</sup> ] ((不)怎麼, (沒有)什麼, 幾乎(沒有))

‘乜滯’는 否定詞와 함께 쓰여 ‘그다지 ~하지 않다’, ‘거의 ~하지 않다’의 뜻으로 쓰이며 형용사나 동사(구) 뒤에 놓인다.

① 부정사+형용사+乜滯

(22) 呢種色唔好睇乜滯.

(這種顏色不怎麼好看.)

이 색깔 그다지 안 예뻐.

(23) 呢啲的橙未熟乜滯.

(這些柳橙還不怎麼熟.)

이 오렌지들 아직 다 익지 않았어.

예문 (22)에서는 부정사 '唔'이 '乜滯'와 함께 쓰였고, 예문 (23)에서는 부정사 '未'가 '乜滯'와 함께 쓰였다. '乜滯'는 각각 형용사 '好睇'와 '熟'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② 부정사+동사+(목적어)+乜滯

(24) 咖啡我唔中意乜滯.

(咖啡我不怎麼喜歡.)

커피 나 별로 안 좋아 해.

(25) 呢排我有睇見佢乜滯.

(最近我幾乎沒有看到他.)

요즘 그 사람 거의 못 봤어.

예문 (24)와 (25)에서는 부정사 '唔'과 '有'가 '乜滯'와 함께 쓰이고 있다. '乜滯'는 형용사 뒤에서 뿐 아니라 동사 뒤에도 놓이는데 예문 (25)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목적어 뒤에 놓인다.

### 3. 反復, 頻度 부사어

1) 添 [tim<sup>55</sup>] (再) : 동사+수량보어+添

동사+목적어+添

'添'은 '再' 혹은 '又一次'의 뜻으로 동작이 거듭되거나 수량이 증가함을 나타



낸다. '添'은 동사 '添(增添, 더하다)'에서 변화한 것으로,<sup>3)</sup> 부사어로 쓰인 후에도 '增添'이라는 원래의 뜻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sup>4)</sup> 다음의 예문들은 '添'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 (26) 我仲要坐一陣添。  
(我還要再坐一下.)  
나 좀 더 앉아 있어야겠어.
- (27) 食一碗添, 唔好客氣。  
(再多吃一碗, 不要客氣.)  
한 그릇 더 먹어, 사양하지 말고.
- (28) 買幾支筆添, 好唔好?  
(再買幾支筆, 好不好?)  
펜 몇 자루 더 사는 게 어떨까?

'添'은 예문 (26)이나 (27)과 같이 수량보어 뒤에 놓여 '동사+수량보어+添'의 형태로 쓰이거나, 예문 (28)과 같이 목적어 뒤에 놓여 '동사+목적어+添'의 형태로 쓰인다.

'添'은 부사어 이외에 어기조사로도 쓰이는데, 문장의 맨 끝에 놓여 강조나 과장의 어기를 나타낸다. 이는 표준 중국어의 '呢'에 해당한다.

3) '添'이 동사로 쓰인 예로는 '添飯'이 있는데 이는 '밥을 더 먹다.(한 그릇 다 먹은 후에 두 그릇째 먹는다)'라는 뜻으로, '동사+목적어'의 어순을 이룬다.

4) 詹伯慧,〈粵方言中的虛詞“親, 住, 翻, 埋, 添”〉:「作爲狀語的“添”是從動詞“添”(增添)的原義轉化而來的, 因此, 在它作爲虛詞以後, 仍然跟動詞“添”的意義有關.(부사어로 쓰이는 “添”은 동사 “增添”의 원래 뜻에서 변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虛化된 이후에도 여전히 동사의 “더하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中國語文》, 1958. 3), 122쪽  
黃家敦, 詹伯慧,〈廣州方言中的特殊語序現象〉:「廣州話作副詞的這個“添”是從動詞“增添”的原義轉化面來的, 它虛化以後, 多少也還透露出“增添”的實義來. 如果在飯桌上說一聲“來啲添”, 雖然這個“添”仍是表數量的副詞, 但却明顯地包含着動詞“增添”的意思, 這時的“來啲添”實際上就是要求再加一點飯菜之類.(廣州語에서 부사로 쓰이는 “添”은 동사 “增添”의 원래 뜻에서 변화한 것이다. 虛化된 이후에도 “增添(더하다)”라는 원래의 뜻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데, 만약 식탁에서 “다시 가져 와”라고 한다면, 비록 “添”은 수량을 표시하는 부사이긴 하지만 동사의 “더하다”라는 뜻을 분명히 지니고 있게 된다. 이 때의 “다시 가져 와”는 실질적으로 음식을 더 가져오라는 뜻이 된다.)」(《語言研究》, 1983년 第2期), 122쪽

- 例) 1. 人哋仲有意見添!  
 (人家還有意見呢!)  
 나 아직 할말이 있단 말이야! (강조)
2. 我以爲你唔翻嚟添!  
 (我以爲你不回來呢!)  
 난 너 안 돌아오는 줄 알았어! (과장)

위의 두 예문에서의 ‘添’은 ‘다시’라는 뜻의 부사어가 아닌, ‘강조’와 ‘과장’의 뜻이 내포된 어기조사로 쓰였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아직도 할말이 더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너 진짜로 안 돌아오는 줄 알았다’는 식의 과장을 나타내고 있다.

2) 翻 [fan<sup>55</sup>](再, 回)

‘翻’은 ‘재차, 다시’라는 뜻으로 중단되었던 동작이나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거나 되돌아감을 나타낸다. ‘翻’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이는데, 동사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동사구의 경우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翻’이 놓인다. ‘翻’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용법으로 나뉜다.

① 동사+翻 (잠시 중단되었던 동작이 원래대로 진행 됨)

- (29) 你做翻你嘅嘢, 我睇翻我嘅書.  
 (你再做你的工作, 我再看我的書.)  
 넌 니 일 계속 해, 난 계속 책을 볼 테니.
- (30) 你仲係教翻書好喇.  
 (你還是再教書好了.)  
 너 다시 교편을 잡는 게 좋겠어.

예문 (29)는 잠시 중단되었던 동작, 즉 일하는 것과 책을 보는 동작이 원래대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고, 예문 (30)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원래대로 다시 진행됨을 나타낸다.

② 동사+翻 (동작의 결과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함)

- (31) 我畀翻<sup>ㄉ</sup>錢佢喇。  
 (我把那些錢還給他了.)  
 나 그 돈 그에게 돌려줬어.
- (32) 唔該, 你擠翻<sup>ㄉ</sup>原來<sup>ㄉ</sup>個處。  
 (不好意思, 你放回原來的位置.)  
 죄송하지만 원래 자리로 갖다 놔주세요.

예문 (31)은 되돌려주는 동작으로 인해 빌려 온 돈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감을 나타내고, 예문 (32)는 제자리로 갖다놓음으로 인해 물건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감을 나타낸다. 두 예문 모두 동사 뒤에 '翻'이 놓였다.

③ 형용사+翻 (상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감)

- (33) 佢上個月病<sup>ㄉ</sup>, 而家好翻<sup>ㄉ</sup>喇。  
 (他上個月生病, 但現在已經好了.)  
 그 사람 지난달에 병이 났었는데, 지금은 다 나아어.
- (34) 呢排天氣又涼翻<sup>ㄉ</sup>喇。  
 (最近天氣又變冷了.)  
 요즘에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어.

예문 (33)은 '翻'이 형용사 '好' 뒤에 놓여 병이 나기 전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감을 나타내고, 예문 (34)는 '翻'이 형용사 '涼' 뒤에 놓여 날씨가 다시 이전의 추운 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나타낸다.

④ 형용사+翻+수량보어 ('조금만 더', '더욱'의 뜻을 지님)

- (35) 呢條褲長翻<sup>ㄉ</sup>一分就<sup>ㄉ</sup>啱喇。  
 (這條褲子再長一分就合適了.)  
 이 바지 일 센티만 더 길었으면 딱 맞았을 텐데.
- (36) 個條領<sup>ㄉ</sup>吐色水深翻<sup>ㄉ</sup>就好喇。  
 (那條領帶顏色再深一點就好了.)

저 넥타이 색깔 조금만 더 진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예문 (35)와 (36)은 형용사 '長'과 '深'뒤에 '翻'이 놓여 '조금만 더'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 때에는 일반적으로 '翻' 뒤에 수량보어가 놓이게 된다.

'翻'은 부사어 이외에 '回(돌아가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는데,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놓인다. 예를 들면 :

- 例) 1. 我要翻屋企.  
(我要回家.)  
나 집에 갈게.
- 2. 佢翻咗公司.  
(他回公司去了.)  
그 사람 회사로 돌아갔어.

동사 '翻'의 뒤에 목적어 '屋企'와 '公司'가 놓여 '동사+목적어'의 어순을 이루고 있다.

#### 4. 範圍, 限度 부사어

##### 1) 晒 [ʃai<sup>33</sup>](全部)

'晒'는 사물이 조금도 남지 않거나 일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나타낸다.

##### ① 형용사+晒

- (37) 嗰間屋舊晒.  
(那棟房子老舊了.)  
그 집 완전히 허물어질 지경이야.
- (38) 呢啲麵包都宿晒.  
(這些麵包全部都酸掉了.)  
이 빵은 전부 다 상해버렸어.

예문 (37)과 (38)에서 보는바와 같이 '晒'는 형용사(舊, 宿) 뒤에 놓여 사

물이 조금도 남김없이 어떠한 상태로 변해버림을 나타낸다.

② 동사+晒+(목적어)

- (39) 圖書館嘅書都唔見晒。  
 (圖書館的書全部都不見了.)  
 도서관의 책이 전부 다 없어졌어.
- (40) 佢飲晒個樽啤酒。  
 (他全部喝掉那杯啤酒.)  
 그 사람 그 잔에 있던 맥주 다 마셔버렸어.
- (41) 我睇晒呢啲書喇。  
 (我全部看完這些書.)  
 나 그 책들 다 읽어버렸어.

‘晒’는 예문 (39)와 같이 동사 뒤에 놓이거나,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예문 (40)이나 (41)처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완전히 종료하게 됨을 나타낸다. 즉, 책이 몽땅 다 없어져버렸다거나 맥주를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다거나, 책을 끝까지 다 읽어버렸음을 나타내게 된다.

이외에도 ‘晒’는 관용어 뒤에 놓여 강조를 나타낼 수 있는데 ‘唔該’나 ‘多謝’ 혹은 ‘滾攞’ 뒤에 놓여 보다 더 정중한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

- 例) 唔該晒.<sup>5)</sup> (非常感謝, 太感謝了.) 정말 감사합니다.  
 多謝晒. (非常感謝, 太感謝了.) 정말 감사합니다.  
 滾攞晒. (太打擾您了.) 폐만 끼쳤습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唔該’와 ‘多謝’, 그리고 겸양을 나타내는 ‘滾攞’ 뒤에 ‘晒’가

5) ‘唔該’나 ‘多謝’는 모두 표준 중국어의 ‘謝謝(감사합니다)’에 해당하지만 그 용법은 서로 다르다. 즉 ‘多謝’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물건을 받았을 때에 하는 인사말이지만, ‘唔該’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에 하는 인사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多謝’라고 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면 ‘唔該’라고 해야 한다.

놓여 좀 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咁滯 [kəm<sup>33</sup>tʃei<sup>22</sup>](差不多)

'咁滯'는 '거의 ~하다'라는 뜻으로 형용사나 동사 뒤에 놓여 어떠한 상황에 거의 근접함을 나타낸다.

① 형용사+咁滯

(42) 蕉熟咁滯咯.

(香蕉差不多熟了.)

바나나가 거의 다 익었어요.

(43) 天黑咁滯, 你仲唔去啊?

(天差不多黑了, 你還不去啊?)

날이 거의 저물었는데 너 아직 안가니?

예문 (42)는 형용사 '宿'뒤에 '咁滯'가 놓여 바나나가 완전히 다 익은 상황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예문 (43)은 형용사 '黑' 뒤에 '咁滯'가 놓여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황에 근접함을 나타낸다.

② 동사+(목적어)+咁滯

(44) 人嚟齊咁滯喇.

(人差不多到齊了.)

모두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45) 佢有四十歲咁滯咯.

(他差不多有四十歲了.)

그 사람 마흔 살쯤 됐을 거야.

'咁滯'는 형용사 뿐 아니라 동사 뒤에 놓이기도 한다. 그런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목적어 뒤에 '咁滯'가 놓인다. 예문 (44)는 동사 '嚟齊'뒤에 '咁滯'가 놓여 모이기로 한 인원의 대부분이 집합지에 도착했음을 나타내고, 예문 (4

5)는 동사 '有'와 목적어 '四十歲' 뒤에 '咁滯'가 놓여 마흔 살에 근접했음을 나타낸다.

3) 埋 { *mai*<sup>21</sup> }(全部, 順便) : 동사+埋+(목적어)

- (46) 我的存款都畀埋佢咯。  
(我那些存款全部給他了.)  
내 예금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줬어.
- (47) 咁多行李, 你一個人攞得埋咪?  
(這麼多行李, 你一個人全部可以拿嗎?)  
이렇게 많은 짐을 너 혼자 다 들 수 있겠니?
- (48) 同我買埋一斤牛肉啦!  
(替我順便買一斤牛肉吧!)  
가는 길에 나 대신 소고기 한 근만 사다 줘.
- (49) 你同我打埋電話畀佢。  
(你替我順便打電話給他.)  
너 나 대신 그 사람한테 전화 좀 걸어 줘.

예문 (46)과 (47)에서의 '埋'는 '全部'의 뜻이고, 예문 (48)과 (49)에서의 '埋'는 '順便'의 뜻이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埋'가 모두 동사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쓰였다.

李新魁는 《廣東的方言》에서 '埋'가 「連~也」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sup>6)</sup> 이러한 경우의 '埋'는 전치사구를 형성한 후 앞에 놓인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전치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7)</sup>

6) 李新魁 《廣東的方言》:「這些副詞通常放在術語或整個句子的末尾, 與普通話的副詞用作狀語置於術語之前不同.……粵語有時用“埋”表示範圍的擴充, 表示“由此及彼”, 相當於普通話的“連……也”.(이러한 副詞들은 일반적으로 술어 혹은 문장의 맨 끝에 놓이는데, 普通話에서 副詞가 부사어로 쓰일 때 술어의 앞에 놓이는 것과는 상반된다.…… 粵語에서는 때때로 “埋”를 사용하여 범위가 확대됨을 나타내는데, 이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나타내는 말로 普通話의 “連……也(……까지도)”에 해당한다.)」(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4), 252-253쪽.

7) 李新魁, 《廣東的方言》, 253-254쪽 참조.

- 例) 1. 開埋<sup>ㄉ</sup>幾個房間.  
 (連那幾個房間也給開了.)  
 다른 방들까지 열어버렸어.
2. 記得買埋我嘅票.  
 (記得連我的票也買.)  
 내 표까지 사는 거 잊지 마.
3. 你做埋我呢分.  
 (你連我這一分也做完.)  
 너 내 몫까지 해 줘.

예문 1은 '埋'가 명사 'ㄉ幾個房間'과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고 있고, 예문 2는 명사 '我嘅票'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예문 3은 명사 '我呢分'과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고 있다. 이들 전치사구는 각각 '開', '買', '做' 뒤에 놓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비록 '埋'가 전치사구를 이루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埋'가 단독으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連~也'의 뜻을 지니고 있는 '埋'의 경우는 부사어라고 할 수 없다.

詹伯慧는 〈粵方言中的虛詞“親, 住, 翻, 埋, 添”〉에서 '埋'는 부사어로 쓰여 동작이나 행위의 완성을 나타내며 표준 중국어로 해석할 때에는 동사 뒤에 '完'을 덧붙여야 한다고 하였다.<sup>8)</sup>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의 '埋'는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완료된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결과보어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sup>9)</sup>

- 例) 1. 我睇埋呢齣戲就翻去.  
 (我看完這部電影就回去.)

8) 詹伯慧 〈粵方言中的虛詞“親, 住, 翻, 埋, 添”〉:「做爲虛詞的“埋”在粵方言中主要是用來充當動詞的狀語表示擴充範圍的意思,……擴充範圍的結果帶有把某項進行中的動作,行爲進行完畢的意思,因此,對譯爲普通話時可以就在動詞後面加一個“完”。(虛詞로 쓰이는 “埋”는 粵方言에서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는데 범위가 확대됨을 뜻한다. ……확대된 범위의 결과는 진행 중이던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됨을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普通話로 번역될 때에는 동사 뒤에 “完”자를 붙일 수 있다.)」(《中國語文》, 195 8. 3), 121-122쪽

9) 詹伯慧 〈粵方言中的虛詞“親, 住, 翻, 埋, 添”〉, 121쪽 참조



나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갈게.

2. 你食埋碗飯就嚟囉。  
 (你吃完這碗飯就來吧!)  
 너 이 밥 다 먹고 나서 와!

예문 1의 '埋'는 동사 '睇' 뒤에 놓여 영화 보기를 끝마친 결과를 나타내고, 예문 2의 '埋'는 동사 '食' 뒤에 놓여 밥 먹기를 끝마친 결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두 예문 모두 '埋'가 결과보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Ⅲ. 기타 方言과 壯侗語族 언어에 나타나는 後置 부사어 현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어 뒤에 놓이는 後置부사어들은 술어 앞에 놓이는 일반적인 부사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後置부사어들은 廣州語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들과 소수민족의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기타 方言에 나타나는 後置부사어 현상

부사어의 倒置 현상은 廣州語 뿐만 아니라 閩方言과 客家方言, 그리고 吳方言과 같은 다른 方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南方方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떠한 後置부사어들이 이들 방언에서도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본문에서의 後置부사어의 예문들은 詹伯慧의 《漢語方言及方言調查》(2001)와 石林的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1997)를 참고로 하였다.

##### 1) 동사+(목적어)+先

'先'이 동사 뒤에 놓이는 현상은 다른 方言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例) 廈門語 : 汝行在先. (你先走.)  
 溫嶺語 : 你走開先. (你先走.)  
 溫州語 : 你走去先. (你先走.)  
 金華語 : 你講先. (你先講.)  
 衢州語 : 你洗先. (你先洗.)

閩方言에 속하는 廈門語나 吳方言에 속하는 溫嶺語, 溫州語, 金華語, 衢州語도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先'이 모두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 2) 동사+多, 少, 加+목적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多' 혹은 '少'가 놓이는 현상은 客家方言이나 閩方言 같은 南方方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潮州語나 莆仙語에서는 '加'가 '多'의 뜻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sup>11)</sup>

- 例) 梅縣語 : 着多一件衫. (多穿一件衣服.)  
           講少兩句話. (少講兩句話.)  
 潮州語 : 食加半碗飯. (多吃半碗飯.)  
 莆仙語 : 頌加幾件. (多穿幾件.)  
 海南語 : 買多兩本書. (多買兩本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梅縣語(客家方言)와 潮州語, 莆仙語, 海南語(閩方言)도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多'나 '少'의 뜻을 지니는 부사어들이 동사(着, 講, 食, 頌, 買)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방언 역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부사어 뒤에 목적어가 놓여 '동사+부사어+목적어'의 어순을 이룬다.

10)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1), 277쪽 참조.

11)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 276쪽.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 98쪽.

3) 형용사+死, 很羅 (太, 非常)

'太'의 뜻을 지니는 부사어는 다른 方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廣州語의 '過頭, 得滯'와는 달리 '死' 혹은 '很羅'가 '太'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12)

- 例) 潮州語 : 隻幅畫雅死. (這幅畫很漂亮.)  
 安徽歙縣語 : 這房子乾淨很羅. (這房子非常乾淨.)

潮州語나 歙縣語 역시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太'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형용사 뒤에 쓰이는데, 潮州語에서는 '死(太)'가 형용사 '雅(漂亮)' 뒤에, 歙縣語에서는 '很羅(非常)'가 형용사 '乾淨'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4) 동사+수량보어, 목적어+添

동작이 거듭되거나 수량이 증가함을 나타내는 '添(再)'은 다른 方言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13)

- 例) 平陽語 : 企一下子添. (再站一會兒.)  
 梅縣語 : 等一下添. (再等一下.)  
 溫嶺語 : 我買眼添. (我再買點兒.)  
 寧波語 : 吃碗飯添. (再吃一碗飯.)

平陽語(閩方言)와 梅縣語(客家方言), 그리고 溫嶺語, 寧波語(吳方言) 역시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添(再)'이 문장의 맨 끝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12)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 277쪽 참조.

13)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 98쪽.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 277쪽 참조. 詹伯慧의 예문 중에는 潮州語에 해당하는 「伊食一碗定.(他才吃一碗.)」도 있지만, 이는 '再'가 아닌 '才'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 2. 壯侗語族 언어에 나타나는 後置부사어 현상

壯侗語族은 중국 境內에 거주하는 少數民族의 언어 중의 하나로 ‘侗泰語族’ 혹은 ‘黔台語族’이라고도 한다.<sup>14)</sup> 이 壯侗語族에 속하는 언어는 壯語, 布依語, 傣語, 侗語, 僂佬語, 水語, 毛難語, 黎語의 여덟 가지가 있다.<sup>15)</sup>

부사어의 倒置 현상은 漢語 方言에서 뿐만 아니라 粵方言 지역과 인접해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 즉,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後置부사어 현상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고 한어 방언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壯侗語族에 해당하는 예문 중에서 壯語는 張元生, 覃曉航의 《現代壯漢語比較語法》(1993)를, 侗語는 石林的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1997)를 참고하였고, 그 밖의 언어는 王均의 《壯侗語族語言簡誌》(1984)를 참고하였다. 壯語의 경우 《現代壯漢語比較語法》에서는 라틴문자를 기본으로 한 壯族의 문자인 壯文을 사용하여 예로 들었으나, 나머지 언어들은 문자가 없는 관계로 국제음표로 기록된 발음을 사용하여 예로 들었다.

### 1) 동사+(목적어)+先

‘先’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동사 뒤에 놓이는 현상은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壯語와 侗語, 布依語, 傣語, 水語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16)</sup>

14) 王均 等《壯侗語族語言簡誌》:“壯侗語族又稱“侗泰語族”或“黔台語族”,我國屬於這個語族的語言分布在廣西壯族自治區,貴州省南部、西部和東部,雲南省西部、南部和東南部,廣東省的海南島和連山壯族瑤族自治縣,以及湖南省的西南部。(壯侗語族은 또한 ‘侗泰語族’ 혹은 ‘黔台語族’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중국)에서 이 語族에 속하는 언어는 廣西壯族自治區,貴州省南部와 西部,東部,雲南省西部와 南部,東南部,廣東省의 海南島와 連山壯族瑤族自治縣, 그리고 湖南省의 西南部에 분포하고 있다.)”(北京, 民族出版社, 1984), 1쪽.

15) 壯侗語族은 또한 세 가지 語支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壯傣語支 : 壯語, 布依語, 傣語

壯侗語族 (侗水語支 : 侗語, 僂佬語, 水語, 毛難語

黎語支 : 黎語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 1쪽

- 例) 壯語 : Mwnɡz bae ɡoŋ.  
 你 去 先.  
 (你先去.)
- 侗語 : ʃau<sup>2</sup> ɸai<sup>1</sup> ɕi<sup>5</sup> wun<sup>5</sup>  
 我 去 先  
 (我先走.)
- 布依語 : pu<sup>4</sup> lau<sup>2</sup> nau<sup>2</sup> kuan<sup>5</sup>  
 誰 說 先  
 (誰先說?)
- 傣語 : su<sup>1</sup> tsau<sup>3</sup> ɸai<sup>1</sup> ɔn<sup>1</sup> ɔ<sup>28</sup>!  
 你 去 先 吧  
 (你先去吧!)
- 水語 : tɔp<sup>7</sup> kon<sup>5</sup>  
 挑 先  
 (先挑)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壯語와 侗語, 傣語에서는 '先'이 동사 '去'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었고, 布依語에서는 동사 '說' 뒤에, 水語에서는 동사 '挑' 뒤에 놓여 後置부사어로 사용되었다.

## 2) 형용사+太, 非常

'太'나 '非常'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壯語와 侗語, 布依語, 傣語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모두 형용사 뒤에 놓인다. 예를 들면:17)

- 例) 壯語 : Ngoenz neix nit dangqmaz.  
 天 這 冷 非常  
 (今天非常冷.)

- 16) 張元生、覃曉航 《現代壯漢語比較語法》(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62쪽.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 97쪽.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 177, 271, 556쪽.
- 17) 張元生、覃曉航 《現代壯漢語比較語法》, 62쪽.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 95쪽.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 160, 270쪽.

侗語 : *ni<sup>5</sup> lau<sup>4</sup>wo<sup>3</sup>*

小 太  
(太小)

布依語 : *siu<sup>3</sup> la:ɿ<sup>1</sup>*

少 太  
(太少)

傣語 : *di<sup>1</sup> tɛ<sup>4</sup>*

好 很  
(很好, 非常好)

이들 後置부사어가 壯語에서는 형용사 '冷' 뒤에 놓였고, 侗語에서는 형용사 '小' 뒤에, 布依語에서는 형용사 '少' 뒤에 놓였고, 傣語에서는 형용사 '好' 뒤에 놓였다.

### 3) 동사+(수량보어, 목적어)+再

동작이 거듭되거나 수량이 증가함을 나타내는 '再'의 뜻은 侗語와 水語에서도 나타나는데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놓인다. 그렇지만 수량보어나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부사어가 이들 뒤에 놓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18)</sup>

例) 侗語 : *ma<sup>1</sup> zau<sup>5</sup> tin<sup>1</sup>*

來 次 添  
(再來一次.)

또 오세요.

水語 : *dau<sup>5</sup> ai<sup>5</sup>*

裝 再  
(再裝)

수량보어가 있는 경우에는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수량보어의 뒤에 놓이는데 侗語의 예문에서와 같이 '동사(來)+수량보어(次)+再(添)'의 어순을

18)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 97쪽.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556쪽.

이룬다.

#### 4) 동사+正在

이밖에 '正在'의 뜻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는 廣州語의 '緊'에 해당한다. 이 역시 동사 뒤에 놓인다. 예를 들면:19)

例) 水語 : *va<sup>5</sup> ta<sup>5</sup>tot<sup>8</sup>*  
           寫 正在  
           (正在寫)

水語에서도 '廣州語'와 마찬가지로 '正在'가 동사 뒤에 놓여 '正在寫'가 아닌 '寫正在'로 쓰였다.

### IV. 後置부사어 형성의 통시적 관찰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廣州語의 몇 가지 부사어들은 술어 뒤에 놓여 '술어+부사어'의 어순을 지닌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인 '부사어+술어'와는 상반되는 어순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왜 廣州語 뿐만 아니라 다른 漢語 방언들과 少數民族의 언어인 壯侗語族에서도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漢語에 있어서 方言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古代 北方의 언어가 오랜 세월을 통해 남하하면서 그 지역의 언어와 융합하여 생겨난 언어 형식이다. 언어의 이동은 인구의 이동과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자발적인 이민이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 또는 전란을 피해 남으로 이주한 개인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한 이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주둔 같은 집단적인 이동도 있다.<sup>20)</sup> 粵方言

19)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556쪽.

20) 李如龍 《漢語方言學》：「不同的方言的擴展還有着不同的原因，常見的擴展不外是民

역시 中原의 漢語가 先秦부터 宋代까지 꾸준히 남하하면서 발전해온 형식으로 李新魁의 《廣東的方言》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先秦시대에 粵方言 지역에서는 漢語의 유입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楚方言의 영향을 받았다. 秦漢 이후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代까지 粵方言 지역은 (中原의) 漢語를 받아들였고 게다가 粵方言 지역의 민족언어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隋唐시기에 粵語는 한걸음 더 나아가 中原의 漢語 書面語의 讀書音を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宋代 이후 粵語는 성숙하고 견고하게 되어 中原漢語와 날이 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粵語가 계속해서 그 지역 소수민족언어의 단어에 유입되어 융화되었거나 소수민족의 어음이나 어법상의 특징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中原漢語와는 다른 자신의 언어가 내부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粵語와 中原漢語 사이에는 더욱 더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在先秦時代, 粵方言區開始處於接受漢語傳播的階段, 起初主要是接受楚方言的影響. 秦漢以後, 經魏晉南北朝至唐代, 粵方言區也是處於接受漢語的傳播以及與當地民族語言融合的階段.……隋唐之際, 粵語更進一步接受了中原漢語書面語讀書音更爲重要的影響. 宋代以後, 粵語在成熟、鞏固之後, 便朝着與中原漢語差異日益增大的道路變化了. 這是因爲它一方面繼續融入當地少數民族語言的詞語或吸收它們在語音或語法上的特點; 另一方面也安着與中原漢語不同的自身語言內部發展規律向前發展, 這就造成了與中原漢語更大的差異.)<sup>21)</sup>

위에서 말한 ‘粵方言 지역의 민족언어’는 壯侗語族의 언어 즉 ‘台語’를 말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粵方言이 先秦부터 宋代까지 中原 漢語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古台語의 영향도 받았다는 것이다. 본문의 壯語나 侗語·傣語등의 예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廣州語와 같은 어순을 지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閩方言이나 客家方言에서는 왜 廣州語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間自發移民、外出謀生和官方組織的移民或征戰屯墾.(서로 다른 방언의 확장은 또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이민, 외부로 나가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정부에서 계획한 이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주둔이 있다.)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1), 22쪽 참조.

21) 李新魁 《廣東的方言》, 69쪽 참조. 粵方言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같은 책 52-69쪽을 참조할 것



것일까? 제리 노먼은 이 세 가지 방언들 즉 粵方言·閩方言·客家方言이 歷史적으로 공동 원천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sup>22)</sup> 그리고 張光宇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閩方言과 客家方言이 古漢語와 台語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閩方言과 客家方言의 형성과정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근간”이 되는 언어는 선조들이 북방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古漢語이고, 華南 원주민의 언어는 가장 늦게 閩方言과 客家方言을 구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한어체계에 흡수되어 들어갔다. (從閩客方言的形成過程來說, 真正的“底層”語言是祖上從北方帶下來的古漢語成分, 華南原住民族的語言成分是最晚才被閩客人民吸納進入漢語體系.)<sup>23)</sup>

위에서 말하는 華南은 壯族과 侗族이 거주하는 지역, 즉 지금의 廣東, 廣西 지역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華南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壯侗語族의 언어인 ‘台語’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中部方言에 속하는 吳方言<sup>24)</sup>이 왜 南方方言들과 통사적으로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游汝杰의 《漢語方言學教程》에 잘 나타나 있다.

북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북방언어의 영향 때문에 비교적 오래된 吳語의 특징은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吳語의 특징이 오늘날의 閩語에 보존되어 있거나, 고대의 吳語가 閩語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浙江省 이남의 吳語와 閩語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어음과 어휘, 그리고 어법상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由於北方移民帶來的北方話的影響, 較古老的吳語特徵是從北向南遞減, 而最古老

22) 제리 노먼 著, 全廣鎮 譯 《중국언어학총론》(서울, 동문선, 1996), 307쪽 참조

23) 張光宇 《閩客方言史稿》(臺北, 國立編譯館, 1996), 266쪽

24) 일부 학자들은 北方方言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들을 南方方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제리 노먼은 吳方言·贛方言·湘方言을 中部方言으로 粵方言·閩方言·客家方言을 南方方言으로 분류하였다. 제리 노먼 著, 全廣鎮 譯 《중국언어학총론》, 271-272쪽 참조. 北方方言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들을 南方方言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인 분류 방법은 지리적인 분포뿐만 아니라 어음, 어휘, 어법 등의 언어적인 특징 면에서도 각 방언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너무 뭉뚱그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的吳語特徵則保留在今天的閩語中，或者說閩語的底子是古吳語。在今天的浙南吳語和閩語中還可以找到許多語音、詞彙、語法方面的共同點。)25)

游汝杰이 말하는 바와 같이 吳語와 閩語는 서로 역사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閩語가 일방적으로 吳語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인접한 언어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閩語와 吳語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吳方言에서도 역시 閩方言과 같은 특징, 더 나아가 南方方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李新魁와 제리 노먼, 張光宇의 주장을 종합해보자면 南方方言(粵方言·閩方言·客家方言)은 역사적으로 北方의 漢語와 소수민족의 언어인 台語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시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걸쳐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游汝杰의 주장까지 종합해보면 吳方言이 閩方言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吳方言에서도 다른 南方方言과 서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사어의 倒置 현상 역시 이러한 원인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後置부사어의 특징이 古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古台語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古漢語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中古시기 산문 형식의 문장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世說新語》와 《祖堂集》26)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이 두 권의 책에서는 부사어가 술어 뒤에 쓰인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後置부사어의 특징이 古漢語의 영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壯侗語族에 속하는 壯語와 侗語·傣語·布依語·水語 등에서는 이러한 부사어의 倒置 현상이 나타나므로 부사어가 술어 뒤에 놓이는 현상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25) 游汝杰 《漢語方言學教程》(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4), 138쪽

26) 《世說新語》는 魏晉南北朝 시기의 대표적인 志人小說이고, 《祖堂集》은 五代시기에 쓰여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禪宗史書이다.

능성 가운데 古台語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 V. 結論

廣州語의 부사어는 표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술어 앞에 놓이지만, 몇 가지 부사어들은 이와 반대로 술어 뒤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後置부사어는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一, 時間부사어 : 先, 住, 緊
- 二, 程度부사어 : 多, 少, 快, 慢, 過頭, 得滯, 乜滯
- 三, 反復, 頻度부사어 : 添, 翻
- 四, 範圍, 限度부사어 : 晒, 咁滯, 埋

이들은 또한 분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一, '형용사+부사어' : 過頭, 得滯, 乜滯, 咁滯
- 二, '동사/형용사+부사어' : 翻, 晒
- 三, '동사+부사어+목적어/수량보어' : 緊, 多, 少, 快, 慢, 埋
- 四, '동사+목적어/수량보어+부사어' : 先, 住, 添, 乜滯, 咁滯

이러한 부사어의 倒置 현상은 廣州語 뿐만 아니라 閩方言, 客家方言, 吳方言과 같은 다른 한어方言들과 少數民族의 언어인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방언의 역사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南方方言에 속하는 粵方言, 閩方言, 客家方言이 古代 북방의 漢語와 古台語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中部方言에 속하는 吳方言 역시 閩方言과 역사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閩方言과 역사적인 근원이 같은 粵方言, 客家方言과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後置부사어 현상들이 古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혹은 古台語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世說新語》와 《祖堂集》과 같은 中古시기 산문 형식의 문장들에서는 부사어가 술어 뒤에 쓰인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는 이러한 부사어의 倒置 현상이 나타나므로 부사어가 술어 뒤에 놓이는 後置부사어 현상은 古台語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王 均 等 編著 《壯侗語族語言簡誌》 北京, 民族出版社, 1984.7  
石 林 《侗語漢語語法比較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12  
李如龍 《漢語方言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1.4  
李新魁 《廣東的方言》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4.10  
李新魁、黃家教、施其生、麥耘、陳定方 《廣州方言研究》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5.6  
李 榮 主編、白宛如 編纂 《廣州方言詞典》(現代漢語方言大詞典·分卷)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0.11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概要》(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6  
麥耘、譚步云 編 《實用廣州話分類詞典》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7.8  
張光宇 《閩客方言史稿》 臺北, 國立編譯館, 1996.9  
張洪年 《香港粵語語法的研究》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72.10  
張元生、覃曉航 《現代壯漢語比較語法》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6  
曾子凡 《廣州話·普通話語詞對比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4.1  
黃伯榮 主編 《漢語方言語法類編》 青島, 青島出版社, 1996.5  
黃家教、詹伯慧 《廣州方言中的特殊語序現象》:《語言研究》 121-126, 1983年 第2期  
黃景湖 《漢語方言學》 福建, 廈門大學出版社, 1987.6  
游汝杰 《漢語方言學教程》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4.9  
鄭定歐 等 《今日粵語》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1993.9  
詹伯慧 《粵方言中的虛詞“親, 住, 翻, 埋, 添”》, 《中國語文》 119-122, 1958.3  
詹伯慧 主編 《漢語方言及方言調查》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1.1  
詹伯慧 主編 《廣東粵方言概要》 廣東, 暨南大學出版社, 2002.7

趙恩挺〈廣州語와 표준 중국어의 否定文 比較 研究〉,《中國文學研究》第29輯,韓國中文學會,2004.12.

劉月華、潘文娛、故韡《實用現代漢語語法》北京,商務印書館,2003.5

饒秉才、歐陽覺亞、周無忌 編著《廣州話詞典》廣東,廣東人民出版社,1997.10

제리 노먼 著,全廣鎮 譯《중국어어학총론》서울,동문선,1996.9

### 【中文提要】

在句子裏修飾謂語的成分叫做狀語,廣州話的狀語大部分都放在謂語的前面,但一些狀語却放在謂語的後面,這些狀語叫做後置狀語。在廣州話裏後置狀語共有十五個:先、住、緊、多、少、快、慢、過頭、得滯、乜滯、添、翻、晒、咁滯、埋。

後置狀語除了廣州話之外,其他漢語方言(閩方言、客家方言、吳方言)和壯侗語族的語言裏也有出現。這種現象與漢語方言的歷史發展有密切的關係。屬於南方方言的粵方言、閩方言和客家方言的歷史淵源是相同的,就是受到古代北方漢語與古台語的影響,因此這些方言中就出現共同的語言現象。而且吳方言(中部方言)與閩方言從歷史發展上具有共同的語言特點,所以吳方言裏也有出現與閩方言相同的特色。由於這樣的原因,粵方言、閩方言、客家方言和吳方言裏便出現共同的現象。

後置狀語產生的原因有三種可能性:一,受古漢語的影響;二,受古台語的影響;三,受古漢語與古台語的影響。中古時期的散文著作中並沒有發現狀語倒置的現象,但是壯侗語族的語言裏可以找到這些狀語的倒置,因此可說狀語倒置的現象是受古台語的影響而形成的。

### 【主題語】

廣州語, 後置부사어, 부사어의 倒置, 語法, 粵方言, 漢語方言, 南方方言, 古漢語, 古台語, 壯侗語族